

設計監理分離에 대한 小考

姜 基 世

본협회 법규위원회 위원장(理事)

건축은 원시 시대의 단순한
은신처로서의 역할에서
시작하여 현대에는 예술적 가치까지
포함한 인류 문화의 중요한 장르를
형성하고 있으며, 원시시대 이후
지금까지의 인류가 자랑하는 모든
건축물들은 그시대를 반영하는 시대의
산물로써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역사성과 시대성에서 지금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건설의 질적문제를 생각해 볼 때,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과연 건설 분야만이 질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서 어떤 분야의
질은 매우 우수하고 다른 분야는 그
정도에 있어 현격히 질이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회의
각 분야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하며 그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그
사회에 선진화를 대변하는 것이다.
더우기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서로 연관된 사회에서는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발적 원인
분석과 임시 방편적인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설사 일시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다른 문제가
파생한다는 것 또한 잘 안다.
우리에게는 종합적 차원에서의 문제
분석과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축분야의 부실문제가 과연
한국인의 장인정신에 결함이 있는
것인가? 건설을 위한 협동체제의
유기성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경제여건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공업화의 성숙도가 낮기 때문인가?

하지만 이런 의문에 앞서 이 분야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질을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한다.
건축물이란 기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것의 질이 우수하고 문화적
가치를 띠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오히려 건축이 문화의
뚜렷한 장르를 차지한다는 문화사적
가치에 있어서는 예술적인 측면이
중시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은
인간의 작은 두뇌에서 창조된 공간의
형성체이기에 더욱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목적으로
설계를 하더라도 백이면 백사람이 각기
다른 형태와 특징을 가진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건축물에서나 선진국 심지어는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의
경우에서도 처음 구상자(설계자)의
의도 존중을 위해 모든 건설분야
중에서도 특히 건축만은 설계자가
끝까지 건축물을 주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릿속의 구상이 실물로 구체화되는
과정은 처음 설계자의 의도나 예술성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히
설계자를 주축으로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협동체제에래 건축주의
이해와 의지가 뒷받침 되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설계자와 감리자의 분리
체제는 의도의 변질과 일관성 결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의
또다른 측면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건설 문제가 어디에
있던 간에 부실공사 방지와 질적

향상도모에 주력하려는 것은 선진화를
위해 모든 수준을 이끌어 올리려는 이
시점에서 볼 때 무척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며 차체에 대책 시안에 대한
의문점과 다른 측면의 개선 내용을
적고자 한다.

1. 전문감리 회사의 신설

전문감리 회사의 업무 내용은
어디까지나 건설회사에 대한 불신에서
초래된 것으로 선진국의 경우 공사의
질은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설계자는 DESIGN QUALITY를 위하여
현장에 개입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여건에서는 건설회사의
불신과 시공의 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생각에서 별도 전문감리 회사의
설립이나 기존 설계사무소의
감리능력보완책 등을 논의하지만 이로
인하여 설계의 연장업무로서의 감리가
소홀이 되거나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한계와 책임한계 등으로
시공편의주의가 나타나, 건설분야중
건축만이 갖는 섬세성과 감각성이
결여되고 이는 문화적인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계자가 의무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주관이 된 상태에서 전문감리
회사가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같으며, 한국의 미 8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설계자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야만 공사도중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인 설계변경,
수정, 보완 등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나아가서 설계의 기술축적이
현장을 통해 이루어져 국제 경쟁력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시안에서,
시공과정에서의 설계자의 역할은

설계자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음은, 어떠한 의미인지 납득하기 어려우나 자문이란 표현은, 별도의 감리자가 임의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설계변경등의 업무가 저작권적 측면에서 볼때 성립될 수 없음을 부인하고 싶다. 따라서 설계자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설계 감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감리자의 책임과 권한

어떤 행위는 잘못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또는 누구누구가 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본래 건축이란 출발부터 완공까지 발상, 타당성, 검토, 마스터 플랜, 설계, 감리, 시공 등의 업무와 참여자로서 설계자, 감리자 일반 건설업자, 전문 건설업자, 자재 생산자, 기기제작자등 여러 분야의 직종이 합쳐 이루어지는 것이며 부실의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가 관련되어지는 건설분야인 것이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을 경우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제재조치로서 그의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자격취소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마치 학생이 잘못된 행위로 인해 선생님이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으며 만약 감리자가 책임을 질 정도의 큰 부실공사라면 이에 관련된 모든 회사 또는 자격소지자를 동시에 같은 제재를 가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벌칙위주의 사회가 된다면 아무도 이에 종사하려는 마음과 업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없어지므로 선진국에서와 같이 보험제도를 개발하여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대처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보험료의 증대, 신용의 하락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3.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는 예술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간을 창조하는 전문가로서 자격취득시 건축시공 기술사보다 건축에 관한 관계법규 및 설계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건축분야의 설계와 감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각국이 통일된 것이다. 건축시공 기술사는 낱말 그대로 건축에 관하여 공사의 질을 확보하면서 설계내용을 설계자의 도움을 받아 책임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시공을 반드시 시공기술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양자의 관계는 전문회사 대형화 추세에 건축에서는 부부와 같은 존재로 상호 보완 되고 있는 실정이나 어디까지나 업무취급 범위와 장르가 다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부에서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여 시공기술사 주도의 감리방안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성격상 분석하면 모순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설계를 제작한 건축사와 감리를 하는 시공기술사 그리고 건설회사측의 시공기술사들 간에 특히 감리 입장의 시공기술사와 건설을 하는 시공기술사 간에 건설기술적 측면이나 도면이해 능력의 자격면에서 동일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능력 면에서 시공기술사가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 하겠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감리의 기능은 감시기능 만으로 전락할 위험이 내포되고 있다. 또한 설계도면의 이해면에서도 설계자가 건설회사측의 시공기술사와 직접대화 하여야 착오가 발생하지 않으며 올바른 전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설계의 보완 발전 수정등을 설계자가 이행하다 보면 감리의 시공기술사는 감시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고려할 때 현재 건설회사의 시공기술사가 현장에 상주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감리자로서 시공기술사가 상주할 정도로 인력이 있다면 당연히 건설회사측의 현장 관리자로 우선적으로 총당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감리자는 건축사가 주관이 되고 시공자는 시공기술사가 주관이 되어 상호간에 건물규모에 알맞는 조직을 갖고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한다면 양질의 건물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결 언

건설공사 부실대책중 여러 측면이 있으나 다른 각도에서 부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건축주의 의지가 투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주관의 건설공사는 건설주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주인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건설장소에 모든 이용자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이들의 신원을 표시한다면 장기적으로 부실제거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된다.

2. 건축공사에 한하여는 저작권의 배경을 활용하면서 인간이 자기 자식을 키우듯 설계자의 정신적 창조물인 좋은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는 심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설계자가 감리 과정에서 반드시 주도적으로 참여되어야 한다.

3. 건설의 공법개발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인간의 심성은 성급함과 편의주의를 선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장인정신이 결여되어가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공장 생산으로 기계화, 자동화, 능률화된 제품들이 현장에서 조립되고 시공되므로써 기능공이 없이도 중장비와 일반 인력으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술개발과 생산업체의 제품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기술 및 공법 개발특허와 수의계약의 특전부여등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또한가지 방법은 현재까지 기술자의 개인 능력과 구두로써 행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감리하는 요령과, 문서로 이루어지는 책임 감리제를 활용하는등 어떠한 기술자가 감리하여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통일된 기술개발과 기술축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런 상황이 정착된다면 시공감리 없이 시공자가 책임지고 건설하는 신용사회가 될 것이다.

끝으로 시행착오 없는 시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이를 실감하고 있는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